

9. 9주차-서거정의 ‘대구십영(大丘十詠)과 스토리(1)

5) 제5영 남소하화(南沼荷花)

(한시 원문)

제5영 : 남소하화(南沼荷花)

출수신하첩소전(出水新荷疊小錢) 개화필경대어선(花開畢竟大於船)

막언재대난위용(莫言才大難爲用) 요건침아만성전(要遣沉痾萬姓痊)

(한시 해석)

제5영 : 남소에 피어난 연꽃

물 위로 새롭게 피어난 연꽃은 작은 동전 쌓아 놓은 듯 하네

마침내 다 피어나면 큰 배만 하구나

너무 커서 사용할 데 없다 말 하지 말자구나

반드시 병을 물리치고 내보내어 만백성을 낫게 하려니.

제5영으로 남소에 피어난 연꽃을 소재로 읊은 시로 연꽃의 모양새를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특히 고질병 치료제로 연꽃을 소개하고 있어 연을 관상용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도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음을 알려 준다. 시에서 표현된 남소에 대한 위치적 정보는 이견이 있어 왔다. 첫째, 제6영의 제목인 북벽향림(도동 향산의 측백나무 숲)에 대응하는 시의 소재로 ‘남소하화’를 위치적으로 판단하여 성당지로 보는 경우, 둘째, 현재 서문시장이 위치하는 곳이 과거 천왕당지였으며, 바로 이 천왕당지가 남소라 주장하는 경우, 셋째, 대구부에서 볼 때 거의 정남향에 위치하는 영선못을 남소로 보는 경우 등이다. ‘대구십영’에서 나타나는 서거정의 주 활동경로는 달성에서 아래쪽으로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는 연귀산을 제외하면 모두가 달성의 위쪽이다. 즉, 서거정은 달성에서 남쪽으로 제법 멀리 떨어져 있는 성당지나 영선못을 ‘남소하화’의 대상인 남소로 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당시 달성 인근에는 연꽃과 관련된 규모가 있는 제언이 3곳(蓮花堤, 蓮信堤, 蓮信新堤)이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달성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곳의 연꽃을 특별히 좋아해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특히 영선못은 조선 초기 제언(堤堰)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아 조선 초기의 제언인 남소로 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남소(남지)는 해동지도, 여지도, 지승, 경주도회(좌통지도) 등에 의하면 달성의 아래쪽에 위치하면서 또한 대구읍성 서문의 좌측에 표현되어 있어 위치상으로는 오히려 지금의 서문시장 자리인 천왕당지로 보는 게 타당하리라 판단된다.

6) 제6영 북벽향림(北壁香林)

(한시 원문)

제6영 : 북벽향림(北壁香林)

고벽창삼옥삭장(古壁蒼杉玉槩長) 장풍부단사시향(長風不斷四時香)

은근경착재배력(慇懃更着栽培力) 유득청분공일향(留得淸芬共一鄉)

(한시 해석)

제6영 : 향산의 측백나무 숲

오래된 절벽에 붙어사는 푸른 측백나무가 옥창처럼 길구나

연중 바람 타고 그윽한 향기를 보내니

은근히 다시금 힘들여 키워낸다면

맑은 향기 온 마을에 가득하겠네.

제6영으로 대구시 동구 도동 산 180번지 불로천변 하식애에 군락을 이루어 서식하는 울창한 측백나무 숲(그림 66)과 숲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온 마을을 감싸는 풍경이 눈에 선하다. 시상을 떠 올리는 주요 매체로는 오랜 절벽 바위(하식애), 측백나무 숲의 향기, 바람, 고을 등이다. 제6영의 ‘북벽향림’에서 북벽이라 함은 제5영의 ‘남소하화’의 남소에 대응되는 위치적 구절이다. 조선시대 대구지역의 방위는 1601년 이후 대구지역에 상주했던 경상감영(현 경상감영공원)을 중심으로 결정된다. 즉, 천왕당지로 추정되는 ‘남소’는 경상감영의 남쪽에 위치하고, 향산인 ‘북벽’은 경상감영의 북쪽에 위치한다. 북벽은 현재 향산으로 불리어지는 작은 산으로 『대구읍지』에서는 불교 용어로 판단되는 라가산(羅伽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도동의 측백나무 숲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1호(1962년 12월 3일 지정)로 대구 달성군의 비슬산에 있는 암괴류(천연기념물 제435호)와 더불어 대구지역에는 두 곳 밖에 없는 소중한 천연기념물이다. 절벽바위에 붙어 서식하는 측백나무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우는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의 측백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 252호),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의 측백수림(천연기념물 제114호),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의 측백수림(제62호) 등이 있다. 예전에 측백나무가 중국 원산으로 인식되어오던 터에 도동의 측백나무 숲은 우리나라 자생수종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뿐더러 측백나무의 남방한계지라는 점에서 자연지리학적으로도 중요하다. 더군다나 수려한 불로천의 하식애와 더불어 향기를 간직하는 측백나무 숲의 조화로우며 서거정은 일찍이 ‘대구십영’의 하나로 표현하고 있어 서거정의 넓은 안목을 볼 수 있다. 불로천을 따라 상류로 더 올라가면 제법 큼지막한 넓은 분지가 펼쳐지는데 이름 하여 평광동(현재는 도동과 평광동이 합쳐져 도평동으로 불림)으로 1960~1970년대 고시 준비생들에게는 꽤나 유명했다. 거기서 다시 산 위로 가까이 가면 후삼국 두 영웅 고려의 왕건과 후백제의 견훤간에 벌어졌던 공산전투에서 크게 패하여 도주하던 왕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시랑이

가 있는 곳이다. 시랑이는 원래 고려 태조 왕건을 나무꾼이 잠시 본 후 나중에 사라진 것을 알고 왕을 잃어버린 곳이라는 의미에서 실왕(失王)이라는 지명이 생겨났으나 경상도 특유의 쉬운 발성법으로 인해 나중에 시랑이로 불려 지게 되었다 한다. 또한 평광동에는 1935년에 5년생의 홍옥 품종을 심어 자라난 대구지역 최고(最古) 수령의 사과나무가 있어 여러모로 대구를 알리는데 소중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의 재미나는 이야기 꺼리를 제대로 엮어 좋은 스토리텔링 명소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7. 천왕당지를 메우고 들어선 서문시장

그림 8. 천연기념물 제1호 ‘도동 측백나무 숲’

7) 제7영 동사심승(桐寺尋僧)

(한시 원문)

제7영 : 동사심승(桐寺尋僧))

원상초제석경층(遠上招提石逕層) 청등백말우오등(靑燈白襪又烏藤)

차시유흥무인식(此時有興無人識) 흥재청산부재승(興在靑山不在僧)

(한시 해석)

제7영 : 동화사의 승려를 찾아가다

저 멀리 절로 이르는 돌계단 길을 따라 오르니

푸른 행전에 흰 버선과 또한 검은 등나무 지팡이

지금의 즐거움을 아는 이 없네

즐거움은 승려가 아니라 청산에 있다네.

동화사는 워낙 유명한 절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동화사를 제대로 알리기는 어려울 거 같아 동화사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잠시 소개하기로 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로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팔공산에 위치하는 동화사 창건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그 중 하나인 동화사사적비에 실려 있는 기록으로 493년(신라 소지왕 15년) 극달화상이 세운 유가사를 832년(흥덕왕 7년)에 심지대사가 재 창건할 때 사찰 주변에 오동나무 꽃이 겨울에 만발하여 있어 동화사라 개칭하였다고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삼국유사의 기록으로 진표율사로부터 영심대사에게 전해진 팔간자를 심지대사가 받은 뒤 팔공산에 와서 이를 던져 떨어진 곳에 절을 지으니 이곳이 바로 동화사 첨당 북쪽 우물이 있는 곳이었다는 얘기가. 이상의 두 가지 창건설 가운데 신라 흥덕왕 7년 심지대사가 재 창건한 시기를 사실상 창건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한다. 그 후 여러 차례 중창과 개축을 거쳐 오늘에 이른다. 시상을 떠올리는 주요 매체로는 동화사란 절과 돌층계 길, 푸른 행전, 흰 버선, 검은 등나무 지팡이, 승려 등이다. 특히 '승(承)구'에서 표현한 '푸른 행전에 흰 버선 또한 검은 등나무 지팡이'에서 연상되는 것은 동화사에 이르는 돌층계 길을 올라가는 승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전(轉)구'에서는 그렇게 돌층계 길을 오르는 승려가 흥겨워 보일 거 같으나 '결(結)구'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흥겨움은 청산에 있다고 하면서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8) 제8영 노원송객(櫓院送客)

(한시 원문)

제8영 : 노원송객(櫓院送客)

관도년년유색청(官道年年柳色靑) 단정무수접장정(短亭無數接長亭)

창진양관각분산(唱盡陽關各分散) 사두지와쌍백병(沙頭只臥雙白瓶)

(한시 해석)

제8영 : 노원에서 손님을 보내며

해마다 관도에는 버드나무 잎이 푸르네

단정은 장정에 무수히 이어져 있고

양관곡을 다 부른 뒤 서로 헤어지니

모래사장 위에는 흰 술병만 두 개 나뒹굴고 있네.

제8영으로 노원에서의 송별을 읊은 시다. 노원은 '대로원'으로 조선시대 대구의 북쪽 관문으로 영남대로가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다. 지금은 금호강에 팔달교가 있어 교통이 편리해졌지만(그림 10), 교량이 없었던 조선시대에는 팔달진이라 하여 나루터가 여객이나 화물 수송을 담당했다. 시상을 떠올리는 주요 시어는 관도, 푸른 버들 잎, 주막, 이별 노래, 모래 밭, 흰 술병 등이다. 기승전결 중 기구의 푸른 버들잎과 결구의 흰 술병은 청아한 색조의 조화를 이룬다. 송별을 노래한 시답게 구구절절 애처로움이 묻어난다. 특히 시에서 나타나는 관도(영남대로) 일대의 가로수인 버드나무와 주막이 어우러진 모습이며, 금호강의 흰 백사장이 당시의 생생한

경관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모습을 금호강종합개발계획에 담을 수 있다면 대구의 정체성을 살림은 물론 외국의 어느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 보다 훨씬 본질적인 문화생태 환경 복원사업이 될 것이다. 영남대로는 주지하듯이 조선시대 영남지방과 수도인 한양 간에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된 주요 도로로 오늘날의 경부고속도로나 경부철도선과 같은 존재였다. 영남대로는 영남의 선비들이 한양으로 과거시험을 보러 가던 꿈과 희망의 길인 동시에 수많은 물자를 교역하던 생명의 길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별을 노래하던 슬픔의 길이기도 하였다. 대구에는 아직도 영남대로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다. 예를 들면, 약전골목과 달구벌대로 사이에 위치하는 떡전골목 일대로부터 현재 건설 중인 현대 백화점 공사부지에 접한 골목길, 이상화 고택, 서상돈 고택에 인접한 골목으로 이어지는 길이 영남대로의 일부에 해당한다. 도심지 영남대로의 발굴은 중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읍성 복원과 더불어 반드시 추진해야 할 대구의 소중한 문화역사자원이다.



그림 9. 함박눈이 내린 날 동화사 설경



그림 10. 금호강을 가로지르는 도시3호선 금호강교(왼쪽)와 팔달교(오른쪽), 조선시대는 이곳에 나루터가 있어 영남대로를 연결해주었다.

9) 제9영 공령적설(公嶺積雪)

(한시 원문)

제9영 : 공령적설(公嶺積雪)

공산천장의릉층(公山千丈倚峻層) 적설만공항해징(積雪漫空沆瀣澄)

지유신사영응재(知有神祠靈應在) 연연삼백서풍등(年年三白瑞豐登)

(한시 해석)

제9영 : 팔공산에 쌓인 눈

팔공산 천길 높고 층층이 험준하네

하늘 가득히 쌓인 눈은 많은 물과 찬 이슬같이 맑기만 하네

신사에 신령이 존재함을 당연히 알겠구나

해마다 삼백이 내려 상서로운 풍년을 맞이하겠네.

제9영으로 팔공산과 그 곳에 쌓인 눈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있는 시다. 특히 한 해 첫눈에 해당하는 정월의 서설인 삼백(정월 초사일에 내리는 눈)은 풍년까지 기약할 수 있는 눈이라 수려한 풍광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풍광이 된다. 시상을 떠올리는 시어로는 팔공산, 눈, 사당과 신령, 풍년 등으로 제3영의 귀수춘운(연귀산의 봄 구름)처럼 풍년을 바라는 기원의 성격이 강하다. 이처럼 대구의 명산이자 한국의 명산이기도 한 팔공산은 대구분지 남쪽에 위치하는 앞산이 어두운 빛깔을 띠는 화산암이나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보기도 흰한 화강암으로 구성돼 있어 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수질도 뛰어나다. 이는 화강암을 구성하는 성분 중 장석이 수질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팔공산은 해발고도 1,192m로 최고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동쪽의 동봉(미타봉)과 서쪽의 서봉(삼성봉)이 균형 잡힌 산세를 보인다. 신라시대에는 부악(父岳), 중악(中岳) 또는 공산(公山)이라 불렸으며, 특히 중악이라 여겨 중사를 지내던 곳이었다. 팔공산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대체로 후삼국의 두 영웅 왕건과 견훤 간의 공산전투 당시 목숨을 다해 왕건을 도왔던 고려의 여덟 공신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설이 다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으나 명확하지 않다. 팔공산은 대한 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를 비롯해 파계사, 부인사, 선본사, 은해사, 북지장사 등 많은 사찰이 산재해 있어 불교문화의 산실이다. 최근 대구시에서는 팔공산의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대구의 테마관광지 조성을 계획 중이라 한다. 제대로 된 불교문화 테마 관광단지 조성할 것 같으면 불교적 특성에 맞는 느린 생활 방식에 토대를 둔 슬로우 라이프 타운(slow life town) 조성으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 즉 선 문화, 사찰 음식 문화를 비롯해, 인근의 다양한 전시관, 박물관 및 체험관을 연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후삼국문화역사 체험관 조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직 후삼국과 관련한 국내 테마 문화관광단지가 없을뿐더러 팔공산에는 후삼국문화를 대표해줄만한 유·무형의 자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인근 금호강의 문화역사생태자원을 포함하게 되면 경주의 신라문화, 안동의 유교문화, 고령의 대가야 문화에 버금가는 대구 팔공산의 후삼국문화를 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대구가 가지는 몇 안 되는 경쟁력 중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10) 제10영 침산만조(公嶺積雪)

(한시 원문)

제10영 : 침산만조(砧山晩照)

수자서류산진두(水自西流山盡頭) 침만창취속청추(砧巒蒼翠屬淸秋)

만풍하처용성급(晩風何處舂聲急) 일임사양도객추(一任斜陽搗客愁)

(한시 해석)

제10영 : 침산에서 바라보는 저녁노을

물은 서쪽으로 흘러 산머리에 이르고
침산은 푸른 비취빛의 맑은 가을빛을 띠고 있네
저녁 바람에 급히 나는 방아소리 그 어디인가
석양의 나그네 근심도 짙도록 맡겨 볼까나.

‘대구십영’ 중 마지막 제10영으로 침산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느끼는 나그네의 감흥을 적나라하게 펼쳐 보이는 매우 서정적인 시다. 시상을 띠우는 소재로는 금호강의 물, 침산, 가을, 방아소리, 석양, 나그네의 시름 등으로 다소 외롭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시어다. 침산은 생긴 모습이 다듬잇돌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침산은 신천이 금호강으로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풍수에서는 수구막이 산이라 판단하여 중요하게 여긴다. 침산은 작은 구릉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유명세를 가지는 탓에 이름도 많다. 봉우리가 다섯 개여서 오봉산, 1906년 대구읍성을 허물게 한 장본인인 경북관찰사서리 겸 대구군수 박종양 소유의 땅이라 해서 ‘박작대기산’ 등으로도 불렸다. 지금도 일대에 사는 어르신들은 ‘박작대기산’으로 부른다. 조선시대 여귀(제사를 받지 못하는 귀신이나 나쁜 돌림병을 옮기는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여제단이 있어 소중한 장소로 인식되어 왔다. 이처럼 중요한 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침산 모습은 오히려 유린되어 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극도로 황폐화되어 있다. 서거정이 대구의 아름다운 풍광 중 하나로 생각했던 침산이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기까지는 대구시민들의 문화의식 수준도 수준이거니와 문화를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문화적 수준을 가늠케 한다. 고층빌딩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침산에서 내려다보는 대구의 전경과 특히 침산만조는 아직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있다. 차제에 제대로 된 보존방안이 마련돼 대구의 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림 11. 눈 덮인 팔공산의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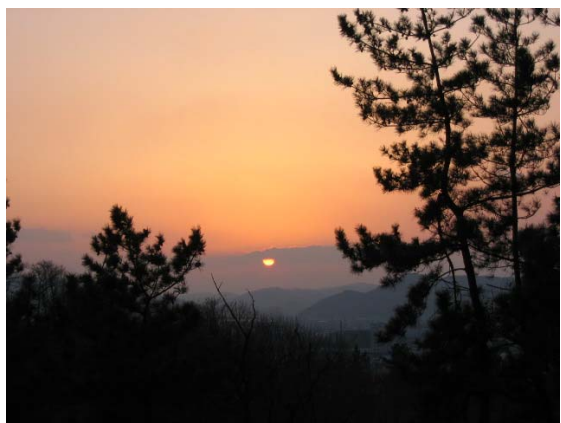


그림 12. 침산에서 바라보는 저녁노을

- 1영 : 금호범주(금호강)
- 2영 : 입암조어(입암)
- 3영 : 귀수춘운(연귀산)
- 4영 : 학루명월(금학루)
- 5영 : 남소하화(남소)
- 6영 : 북벽향림(북벽)
- 7영 : 동사심승(동화사)
- 8영 : 노원송객(노원)
- 9영 : 공령적설(팔공산)
- 10영 : 침산만조(침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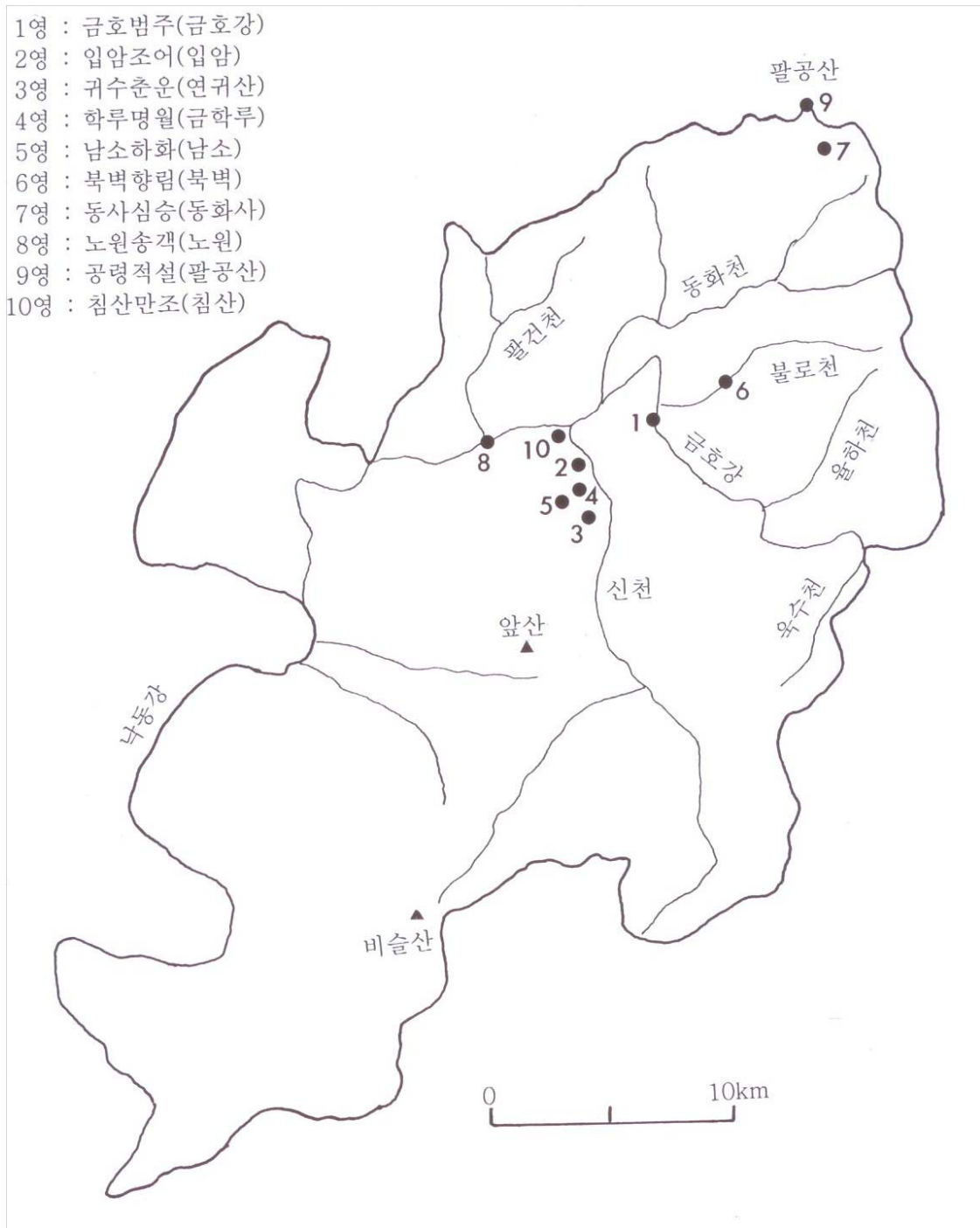


그림 13. 서거정의 대구십영지 분포도